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50

2025 겨울

재첩

Corbicula fluminea, 재첩과

크기

크기는 각장 34mm, 각고 30mm 정도이고, 패각은 삼각형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황갈색이지만 서식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정은 중앙에 위치하고, 성장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뒤쪽 등선에 비해 앞쪽 등선의 경사가 완만하고, 각정부는 부풀었다. 패각 안쪽 면 측치는 엷은 자주색을 띄고 중앙은 백색을 띈다.

생태

연못과 인공호 등 정수역과 평지하천 등 유수역에 주로 서식한다. 모래가 섞인 진흙이 많은 하상을 선호하고, 돌 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플랑크톤 및 조류, 유기물 등을 먹는다.

CONTENTS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93
이금화 노현1리 이장

08 실개천과 금강 - 16

12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4

17 정책연구위원회 활동보고

22 제 2차 대청호포럼

24 등동천 거버넌스 활동보고

28 대청호 해설사 활동보고

26 네트워크 사업보고

30 대청호뉴스&뉴스

32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34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50

발행일 2025. 12. 15.
발행인 고창섭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대청호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며 평안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청호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대청호와 함께 이어진 삶의 시간

이금화 노현1리 이장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현1리 이금화 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대청호 보전 활동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금화 이장은 마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서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청호 곁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2월, 노현1리 마을회관에서 이금화 이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마을에 일이 생기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현1리 마을회관에 들어서면 이 마을의 분위기가 먼저 전해진다.

정돈된 골목길과 깨끗한 하천,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 이곳에는 마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먼저 움직여 온 이금화 이장이 있다.

이금화 이장은 현재 노현1리 이장으로서 마을 일을 맡고 있다. 특별히 앞에 나서겠다고 마음먹기보다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 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앞에서 한 발 먼저 나섰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노현리를 만들어왔다.

시집와서 시작된 농촌의 삶

보은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금화 이장은 결혼과 함께 노현리로 내려왔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농촌의 삶을 시작했다. 농사일은 익숙하지 않았고, 집안의 사정까지 겹치며 생활은 쉽지 않았다.

"힘들어도 해야지요. 딱 내려왔으니까 살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농사를 배우고,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일들을 하나씩 맡기 시작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삶의 흐름에 가까운 과정이었다. 그렇게 노현리는 그의 생활 터전이 되었고, 그는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이어온 시간

노현리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화 활동과 환경교육,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며, 마을은 조금씩 변해왔다.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인식이 함께 바뀌었다.

노현리에서는 환경교육과 함께 저탄소 로컬푸드 요리교실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주민들이 대청호 인근에서 나는 식재료의 가치와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왔다. 단순히 듣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고, 먹고, 다시 활용해보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배운 내용은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금화 이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마을 환경을 눈에 띄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정기적인 마을 청소와 하천 정화 활동, 폐비닐 수거 같은 일들이 이어지며 마을은 점점 더 정돈되었고, 깨끗해진 환

경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같이 하고 나면, 확실히 덜 버려요."

함께 움직였던 경험은 주민들의 행동으로 남았다. 외부에서 시작된 활동은 마을 안의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환경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금화 이장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함께 고민하고, 마을의 속도에 맞춰 활동을 이어온 과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로 남았고, 그 신뢰가 다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을 너머, 이웃 마을과 함께

노현리의 변화는 마을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인근 두모1리와 함께 마을교류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가까이에 있었지만 교류가 많지 않았던 두 마을 주민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과 마을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금화 이장은 이 시간을 통해 마을 일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말한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이후 마을 간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바람

이금화 이장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활동들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환경교육이든, 정화활동이든, 로컬푸드 요리교실이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의미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해보니까 괜찮다고,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다만 마을의 현실도 함께 짚는다. 노현리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활동의 방식도 그에 맞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거나 부담이 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르신들도 무리 없

이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어려운 건 말고, 우리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좋지요."

이금화 이장은 앞으로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노현리와 함께 오래 호흡하며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을의 상황을 잘 아는 단체와 함께했기에 지금까지의 변화가 가능했고, 그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마을이랑 같이,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대청호 곁에서 전하는 인사

인터뷰를 마치며, 이금화 이장은 함께 활동해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올 한 해도 욕 보셨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

대청호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선택들, 생활 속에서 이어진 작은 실천들이 모여 오늘의 대청호를 만들어왔다. 이금화 이장이 걸어온 시간은, 대청호와 함께해 온 세월 그 자체였다

갈전동 실개천 이야기

글_**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신탄진에서 대청댐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보조댐이 나온다. 이곳을 지나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계속 가다 보면 삼정리가 나온다. 이곳을 지나 대청호를 따라가면 '갈전동'이 보인다.

갈전동 마을 옆에는 '마을유래비'가 있다. 이곳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갈전동은 대덕구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청호와 접해 있고, 남쪽은 이현동, 서쪽은 용호동, 북쪽은 삼정동과 접해 있는 동이다. 옛날에 갈대밭이 많아서 갈밭 또는 갈전이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갈대 로(蘆)자를 써서 노전(蘆田)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칡밭이 지천으로 덮여 있어 갈밭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조선 정조 13년(1789) 호구 총 조사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기부터 갈전리라는 행정구역과 지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명으로는 양지말, 음지말, 갈밭이 있다. 여기 마을주민과 출향민들의 뜻을 함께 모아 긍지를 높이고 이곳을 대대손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이 비를 세운다.'

갈전동 뒷산

고마리와 환삼덩굴

위의 유래비에서 보는 것처럼 갈전동은 예로부터 갈대가 많은 동네였다. 이곳을 지난여름 두 번 방문하였다.

갈대는 물이 많은 습지에 사는 식물이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다. 잎은 길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습지나 모래땅에 군집을 이루어 살아가는 식물이다.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면 한쪽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라고 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으로 쓰기도 했다. 이런 갈대가 많았던 갈전리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더운 한여름이었다.

마을 뒷산에는 녹색지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녹색지대다. 길옆에는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앞산, 뒷산, 옆산을 보아도 모두 녹색지대. 녹색 세상에 온 느낌이다. 마을을 뒤로하고 물이

개구리밥과 부들

흐르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가니 작은 실개천이 보인다.

실개천은 여름 가뭄에 물은 거의 말라 있고 고마리와 환삼덩굴이 뒤덮고 있다. 고마리와 환삼덩굴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특히 고마리는 더 물을 좋아하여 많이 번식하면 다른 식물들은 감히 침입도 못한다. 녹색 바탕에 빨강과 흰색의 조화를 이룬 꽃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예뻐 보인다. 고

실개천 중류

참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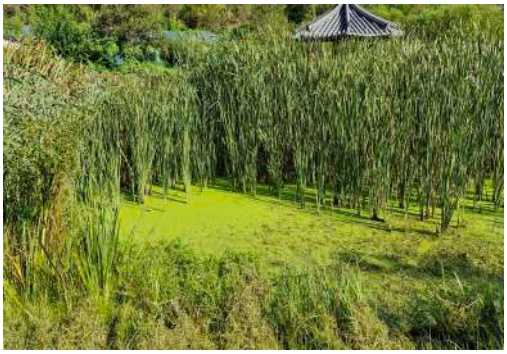
생태습지 안내판

마리는 물을 정화하는 중요한 식물이다.

고마리를 뒤로하고 내려가니 인공둠벙이 나왔다. '갈전동 생태습지공원'이다. 둠벙은 수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물을 모아 머무르게 한다. 물이 모이면 이곳에는 온갖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자리 잡는다.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보니 개구리밥이다. 개구리밥은 어디서 왔는지 처음에는 한 두개 보이다가, 폭발적으로 번식하여 둠벙을 모두 덮고 있다.

개구리밥 옆에는 소시지처럼 생긴 부들이 많이 자란다. 수분할 때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려서 부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런 부들은 갈대와 같이 둠벙의 물을 정화해주는 중요한 식물이다. 한 번 번식하면 크게 번성하여 전체를 덮는다. 군집을 이루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여과시킨다.

아래에 있는 인공습지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

버드나무 군락

대청호 전경

개구리밥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안쪽에 눈 만 내고 있는 녀석이 보인다. 참개구리다. 이 녀석은 내가 가까이 접근하자 밖으로 도망친다. 참개구리는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다. 그러니 항상 물을 떠날 수는 없다.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니 양서류이다. 등에 줄이 세 개 선명히 있다. 논에서 많이 보이는 녀석이다. 이 녀석을 '논개구리'라고도 한다.

조금 더 내려가니 다시 물이 말라 있다. 이곳에도 물을 좋아하는 개망초와 환삼덩굴이 보인다. 인공 둠벙을 만든 안내판도 보인다. 아래쪽에 또 다른 둠벙이 보인다. 이곳에는 정자가 있고 위의 둠벙과 같이 개구리밥과 부들이 둠벙의 주인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니 습지식물의 대명사인 '버드나무'군락이 보인다. 물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버드나무가 영 신통치 않다. 반은 죽어 있고, 있는 나무들도 가지와 잎이 부실하다. 이곳도 물이 부족해 보인다.

버드나무 군락을 지나니 시야가 뻥 뚫리면서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과 산과 하늘이 보인다.

갈전동. 예로부터 갈대가 많아서 붙혀진 이름인 갈전리의 명성이 지속 되면 좋겠다. 실개천에 흐르는 물은 많이 없지만 인공둠벙과 우리의 노력으로 갈대가 번성하는 동네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대청호를 지키는 길이다.

※ 그동안 '실개천과 금강'을 사랑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호를 끝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실개천과 함께 대청호가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을 대청호를 돌아보며 드는 생각

글_**여규용** 대청호해설사

가을이 깊어간다. 물기 없는 바람은 숲을 거쳐 물위를 달려오고 그 바람은 호숫가 은빛 억새와 함께 춤을 춘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런 풍경을 수시로 즐길 수 있음은 행복이다. 올가을 날씨는 예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기온차는 확실히 다르다. 따뜻하다 싶으면 갑자기 추워지고 춥다 느껴지면 후끈 열기가 가득하다. 지난 일요일 산에 갔었다. 부지런히 앞만 보며 오르는 길에 눈에 들어오는 꽃 한송이가 발길을 잡는다. 겨울이 코 앞인데 꽃이라니 싶어 자세히 보니 진달래가 피었던 거다. 기온이 들쑥 날쑥하는 가운데 평소보다 올라간 기온이 더 많아지다 보니 산길의 봄꽃들도 때를 잊었나 보다하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에 이 꽃들이 적응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듯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을 꾸준하고 끈임

벚꽃한터 앞의 아름다운 억새 밭

물속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아름다운 은빛 억새길

없이 만들어 내고 시행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어느날 대청호해설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처럼 오백리길을 걸었다. 매달 오백리길 걷기를 하기로 하고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행을 하지못하다가 이날은 무조건 걷자고 모인 날이다. 벚꽃한터에 주차를 하고 일행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호숫가로 나가 보았다. 지금의 대청호 물 수위는 만수위다. 야트막한 늪지대도 만들어 지고 거기서 자라던 버드나무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풍경하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버려진 쓰레기들이 찰랑 거리는 물결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물이 없을 때 갈대숲에 거려져 있던 것들이 물이 차오르자 떠밀려 와서는 그렇게 물결 따라 춤을 추고 있었던 거다. 그런 쓰레기를 보는 순간 그때까지 아름답게 생각되던 풍경이 한 순간에 삭막한 풍경으로 바뀌었다. 늘 이곳에 올때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기대가 반감되곤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흥진마을길 걷기에 나선다. 조선 오리집 앞에서 출발하여 걷는 길이 눈부시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기온은 햇살이 퍼지니 포근하다. 언제든 오면 좋은 곳이다. 눈앞에 펼쳐진 억새들의 은빛 춤사위가 황홀하다. 한참을 서서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 언제인가 이곳 억새를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풍경으로 우리를 맞아주니 고맙다. 이곳은 물이 빠지면 옛 집터가 보이는 그런 곳인데 지난 여름 한참 갈수기 일 때 이곳에 살던 주민들의 집터를 볼 수 있었다. 잠시 걸어 들어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언제 이곳을 이렇게 데크길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길에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걷기 좋게 해 놓았는지 궁금증이 들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런 데크길 만들었다고 뭐라 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아쉽지만 그냥 마음속에 담아 둘 수 밖에 없는 곳이다. 예전의 이곳은 바로 호수를 끼고 걷는 길이어서 호수 물 수위가 만수위가 되면 평소 걷던 길 위쪽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며 걷던 곳이다. 새롭게 길을 내며 걷다 보면 산 언덕이 다시 파손되기 일쑤여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

아름다운 억새길이 사라진 모습

은빛억새가 빛나는 억새섬 하나

서는 이해가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생각으로 걷는 내내 즐겁고 행복하다. 자연이 주는 행복감이 이런거 아닐까 싶다.

최근에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참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주인인 양 살아왔던 지난날이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한 호랑나비 관찰 활동은 내게 또 다른 의미로 기억 속에 남았다. 작은 생명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사람들 못지 않음에 경외심이 들었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된 활동이었다. 알을 낳는 모습도 직접 보았고 애벌레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고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어 힘찬 날개짓을 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종족보전을 위하여 기주식물 잎 하나에 알 하나씩을 낳고 그 기주식물을 먹으며 자라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호랑나비도 이렇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참 행복했다. 그런 모습을 직접 살펴 본 아이들도 그 사랑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듯 행동하고 생각 한다. 앞으로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이곳 대청호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내가 대청호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오늘 같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좋아서 이기도 하지만 이런 곳을 오래도록 보전하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기에 그렇다. 이곳 흥진마을길 대청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상 정원길 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찾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파란 하늘과 거기에 투영되는 자연풍경이 그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빛 억새의 장관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카메라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 흥진 마을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걷던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은빛 억새를 끼고 걷던 그 길이 사라지고 위쪽으로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의 이 억새길은 연인들이 손잡고 걸으며 추억의 사진을 남기곤 하던 곳이

었는데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 무척 아쉽게 느껴졌다. 그런 모습에 내 추억도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그래도 호숫가 작은 억새섬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청호의 풍경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데크길과 야자메트는 걷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면 주변에 많이 들어서는 카페며 부대 시설은 그곳을 먼저 점령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다른 것이다. 이곳 흥진마을 길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처음 이곳 길이 조성되고 붙여진 이름이 "흥진마을 길" 이었었는데 나는 지금도 이 이름을 즐겨 사용하고 부르고 있다. 처음 내가 차를 세워 둔 곳의 이름이 얼마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긴 벚꽃 길"로 불렸고 지금 주차장 이름은 "벚꽃 한터"로 불리고 있다. 어쨌거나 그 이름처럼 조금 유명해 지겠다 싶은 곳이 생기면 영낙없이 들어서는 상업시설이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 버리게 하는 것 같다. 이곳 흥진마을길도 걷다보면 카페가 나타나는데 생긴지 몇 년이 되어 이제는 당연한 듯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곳이 생기면 자연히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들어서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커다란 주차시설이다. 바로 고개너머 "벚꽃한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들어와 될 듯 한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수 많은 차들이 드나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오염이 될 것이다. 자동차의 매연은 비점오염원이기도 해서 하천가나 호숫가에는 들어가면 않되는 것이다. 이곳 흥진마을에도 처음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작

흥진마을 카페 앞 주차장

은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후 카페가 들어서면서 그 주차장의 규모가 커졌고 드나드는 차량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 곳만이 아니다. 명상정원길 가는 곳에도 한터가 생기고 그 옆에 커다란 카페가 성업 중이다. 돌아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다.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 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이 숙제다. 일단 머릿속에는 기본 방향은 기획해 두었는데 함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검토하여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한다. 뭐든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 참 재미있고 즐겁다. 지금까지 해온 숲생태교육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큰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 오백리길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식물이 있고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어떤 상태에서 생존하는지를 분석해야한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

함께 걸은 선생님(왼쪽 부터-이용현회장, 윤정원선생님, 그리고 나)

두고 있다. 무언가 만들고 실천해 가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 그것이 지체되고 제자리 걸음 할때는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만들어 내고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만족감을 볼때는 그동안의 피곤함은 멀리 사라지고 없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중에 하나다.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름으로 홍보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학습 프로그램과 관광 프로그램 두가지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는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딴지를 걸고 은근히 훼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은 일절 배제 한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다가 다 만들고 시행 단계에서 참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제한다. 꼭 그런 사람 있다. 대청호 호숫가에 가냘프게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도 시린 물속에 발 담그고 꿈을 키운다. 그 꿈이 봄이 되어 포실 포실한 버들강아지로 피어날 날을 기다린다. 우리의 꿈도 그렇게 피어날 것이기에 이 가을날에 기쁜 희망을 심는다.

2025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글_**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우리단체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맹승진)는 지난해에 이어 '성과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통해 8개지역 네트워크와 본부사무처를 중심으로 25년의 성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청호유역내 수질오염 감시, 생태계보전 실천활동 확산, 민관협력활동 촉진 등 창립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표현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평이 계속됨에 따라 조직혁신 및 시스템 고도화, 활동가 역량제고와 리더십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며 대청호보전운동에 대한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지지와 협력이 강화되며 시민참여를 활성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대청호 환경현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의 경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면서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세차례의 현안모니터링이 이어졌다. 지난 6월30일,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내 대중골프장 예정부지를 찾아 생태환경조사를 펼치면서 새호르기, 팔색조, 수리부엉이 및 긴꼬리딱새의 흔적을 찾아내는 등 생태보전가치가 충분히 많은 지역임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9월8일, 대전 동구 신상지구 수변생태벨트

의 주민관리체계를 진단하는 가운데 인공습지의 조성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관리계획임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필요함을 홍보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10월22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 공판장 운영사례를 진단하는 가운데, 대청호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 변경에 따라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내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파악하면서, 지역내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기 보다는 상생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을 공유했다.

이와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7월10일 1차 대청호포럼을 통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같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동사례가 확산되어야 하며, 안정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이어졌다.

또 12월3일 2차 대청호포럼에서는 녹조를 주제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녹조의 진실과 거짓된 부분을 짚으며, 인위적 행위에 따른 영양염류의 유입차단정책에 관심이 쏠렸다. 각계각소의 대청호유역민 공동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녹조확산,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더이상 사회적 갈등을 빚는 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리단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천활동과 노력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될 것이다.

제2차 대청호포럼 개최

녹조 문제 해법, 과학과 현장이 함께 길을 찾다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충북물포럼은 지난 12월 3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제2차 대청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청호 녹조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과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수자원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대청호 수질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는 맹승진 충북물포럼 공동대표 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장의 개회사와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표는 최지용 교수(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가 맡아 「녹조란 무엇인가 - 녹조의 진실

과 오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 교수는 녹조가 발생하는 기본 원리와 생태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수온 상승, 일조량, 영양염류(질소·인) 유입, 물의 체류시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녹조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녹조를 단순한 '오염 현상'이 아닌 수생 생태계 변화의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과학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는 안치용 책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상수원 녹조 저감 정책 방향과 기술 동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녹조 대응 정책과 기술 개발 흐름을 소개하며,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처리 기술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했다. 또한 녹조를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과 함께, 오염원 유입을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수질 관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조주영 물환경부장(K-water 금강유역본부)이 맡아 「대청호 녹조 발생 특성 및 처리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장은 대청호 수역의 물리적·환경적 특성을 소개하고, 최근 수질 변화 양상과 관리 체계, 현장에서 운영 중인 녹조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장 모니터링 체계와 예방 중심의 관리 노력, 신기술 시범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집중 토론은 이상진 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송미영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백명수 상임이사(먹는물네트워크), 임병희 사무총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송철민 교수(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이경호 사무처장(대전환경운동연합), 김남균 기자(충북인뉴스)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녹조 문제를 단기적 기술 해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생활 속 실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

점에서 의견을 공유했다.

청중 토론 시간에는 현장 활동가와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김영식 대청호 해설사(4기)는 “깨끗한 물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은 대청호 유입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녹조 저감을 위한 물리적 처리 기술과 가시화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사전 예방 중심 관리와 주민 지원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적 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녹조 문제를 둘러싼 과학적 이해와 정책적 논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현장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대

청호 수질 관리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앞으로도 포럼과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건강한 수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게 가꾸는 등동천 소유역 거버넌스

글_**강보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기획부장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공동으로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등동천 유역에 농업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24년부터 27년까지 금강유역 환경기초조사사업을 맡고 있다. 벌써 올해가 총 사업년도의 절반에 접어드는데 2차년도 진행된 내용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여러분들은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에 대해서, 그리고 미치는 영향을 잘 아는가?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다수의 오염원으로써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은 물질들이 비가 오게되면 도랑으로, 하천으로,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들을 일컫는다. 그런 오염원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천 둑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쌓아 놓는 비료, 과하게 뿌린 비료의 잔류 성분, 축분, 폐 비닐, 초미세 플라스틱, 소각재, 비산먼지, 담배 꽁초 등을 얘기할 수 있다. 한 집에서 조금 버린 오염원일 뿐인데 무슨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가구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구가 버린 작은 오염원이 비가 올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모인다면 어떠할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 녹조 대응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오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키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문의면에 소재한 등동천은 대청호유역에 직·유입되는 본류다. 이 지역에 농업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적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적용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동1리, 등동2리, 도원1리, 도원2리, 두모1리, 두모2리, 품곡리, 청주시 흥덕구 남이면 문동리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별 주민대표와 전문가, 기관, 지자체를 포함해 거버넌스 운영위원을 구축하여 연구 사업의 취지 논의, 사업 수행의 계획 및 방향 점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거버넌스 총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마을대표 외 마을주민들이 사업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소개, 주민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된지 반년도 안 되어 사업설명회 8회, 주민교육 9회가 진행되었다.

마을주민의 참여를 통해 환경전문가단을 구성하여, 등동천 유역에 발생되는 오염원 현황 조사, 최적관리기법(BMPs) 보급지원 및 현황조사, 매월 등동천 전체 유역의 28지점 건기 수질모니터링, 비 올 때 진행하는 우기 수질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기관, 지자체가 참여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통해 대청결 행사도 진행하여 하천에 버려진 오염원들을 일제히 수거 및 정리하고, 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주민계도도 함께 수행되었다. 대청결 행사에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쓰레기와 폐영농자재, 폐비닐 등의 오염원 약 10톤이 수거됐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에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최적관리기법(BMPs) 중에 하나인 토양밴딩을 하천변에 인접한 밭, 과수원, 하우스 농가 102필지, 약 137,362㎡ 대상으로 319롤 보급을 완료하였다. 최적관리기법(BMPs) 중 1차적으로 토양밴딩 보급은 종료되었지만, 논 농가를 대상으로하는 완효성비료 보급은 남은 반년 동안 진행하게 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의 녹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걷고 뛰고 움직일 것이다.

2025 대청호해설사 활동 기록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홍보팀장

대청호해설사들은 올 한 해 동안 대청호의 가치를 알리고 물환경 보전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와 월별 스터디는 해설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배움은 이후의 현장 활동에 깊이를 더했다.

대전·청주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물환경교육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총 9개 학교, 35회 교육을 통해 898명의 학생들이 대청호의 생태 구조, 수질 변화, 녹조 발생 원인 등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물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또한 대청중·대화중·봉명중의 물사랑 지킴이단 환경동아리 활동에는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발대식, 이론 교육, 현장 탐방, 활동 나눔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경험을 쌓았다.

올해 해설사들은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며 해설의 시야를 더욱 넓혔다.

이 활동은 대청호를 둘러싼 오백리길을 직접 걸으며 각 코스가 품고 있는 자연·문화·생태적 특색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월 1회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흥진마을 오백리길을 탐방하며 마을의 역사적 맥락, 주변 하천·습지 환경, 식생의 변화 등을 분석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얻은 이해는 앞으로의 환경교육 콘텐츠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며, 대청호해설사만의 지역 밀착형 교육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 되고 있다.

4월 24일에 진행된 지구의 날 환경체험부스 운영은 해설사들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환경퀴즈와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물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생활 속 실천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설사들은 역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현장 학습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5년 11월 진행된 선진지 견학 활동에서는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청농원을 방문했다. 습지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역사·문화·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해설사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에서의 전문 해설 탐방은 습지 보전의 국제적 가치와 대청호 주변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대청호해설사들의 활동은 교육 현장에서 시민과 학생을 만나고, 대청호 오백리길을 직접 걸으며 지역 환경을 체득하고, 또 선진지에서 새로운 사례를 배우는 흐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올해의 활동은 해설사들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대청호 보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을 이끄는 지역 환경 해설자임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대청호해설사들은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대청호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무주 네트워크

주민과 함께한 환경 보전 실천의 한 해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올 한해 무주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환경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가시박 제거 활동, 농약빈병수거활동, 주민환경교육, 친환경제품만들기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주네트워크의 역할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각 마을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함께 움직여 주신 덕분에 계획된 활동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주민들과의 소통 또한 더욱 원활해졌다.

내년에는 주민 참여 폭을 더욱 넓히고, 마을 중심의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구축하고자 한다.

금산 네트워크

2025 금산네트워크 추풍천 소유역거버넌스 운영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급변하는 때를 살고있는 것이 실감난다.

2025년 금산네트워크는 무덥고 뜨거운 날씨속에서 회원단체와 회원마을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금산네트워크에서 회원단체중 자연보호협회 금산지부에서 주관하는 하천정화사업을 3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하였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농업실천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심회 주관으로 가시박제거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는 가시박이 마을안까지 번져서 이곳저곳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았다. 파죽지세로 번지는 가시박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업으로 어찌 감당

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다른 사업을 연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산고등학교 생태환경탐사단이 다방면으로 활동하였고 회원마을 중심으로 깨끗한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옥천 네트워크

대청호 상류지역의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마을 만들기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2025년 옥천네트워크의 사업은 대청호수변환경정화활동, 선진지견학, 깨끗한 서화천만들기, 안내천 소유역거버넌스, 대청호수중정화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진행한 대청호수변정화활동은 옥천군자원봉사센터, 대청호수난구조대등과 함께 45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2,700L 쓰레기를 수거했다.

선진지견학은 올해 서천 국립생태원으로 하감단,이사진,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했고, 깨끗한 서화천만들기는 옥천 하천감시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4회 진행 되었다.

하천감시단 및 이사진, 마을주민들과 함께 총 4회 진행되었고, 하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서화천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안내천소유역거버넌스는 안내면 방곡리 정화활동, 교육 및 안내면 농약병 수거진행했고, 대청호수중정화활동은 대청호수난구조대의 주관으로 2회 마무리 되었다. 총 쓰레기 5,400L를 수

거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2025년 옥천네트워크의 사업은 정기적인 회의 진행으로 네트워크 사업공유를 하여 계획대비 잘 이루어졌으며, 마무리도 잘 되었다고 판단된다.

2026년에도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여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동 네트워크

2025년도의 사업을 정리하며~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올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지나니 금새 추운겨울이 다가오는 듯하다. 회원마을 및 하천 정화활동들을 하였고, 환경교육 위주의 사업을 여러차례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환경음악회가 주를 이뤘다. 그중에도 하가리마

을의 음악회가 기억에 남는다.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나 단합은 물론 주민들로 구성된 난타공연과 색스폰동아리의 연주는 너무 멋있었다. 저녁시간 활용으로 마을회관 앞에 마련된 장소에 설치된 미러볼 조명과 장작난로가 운치를 더해 주었다.

2026년에도 더 일찬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내실있는 영동네트워크를 기대된다.

보은 네트워크

지역주민과 함께 2025년 대청호사업을 마무리하며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2025년도 시작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 올 한해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와 회원마을 주민분들, 환경연합회원분들, 하천감시단원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깨끗한 마을만들기와 맑은하천만들기 사업으로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에 동참하고 깨끗한 대청호를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보람된 마음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 2026년도에도 더 알찬 사업으로 대청호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보은네트워크가 되겠다.

청주 네트워크

청주네트워크, 농한기에도 이어진 따뜻한 공동체 실천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농한기를 맞아 청주네트워크 회원마을 6곳에서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청결행사를 진행했다. 동절기를 대비해 진행된 이번 대청결행사에는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약10여톤의 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상당구청의 협조로 수거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마을 환경은 한층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청호해설사의 강의로 분리배출 요령 교육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도 병행해 일상 속 작은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1월 22일, 문의면 두모1리에서 열린 김장체험축제에 회원마을인 노현1리의 이장님과 주민들이 마을간 교류사업으로 참여해 김장도 함께 담그고 공연도 즐기며 마을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10km 남짓한 거리에 있지만 그동안 교류가 없던 터라 주민

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마을간 교류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청주YMCA와 두모1리에서 함께 준비한 대청호 농촌 체험 및 봉사활동도 10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어 전통 떡메치기, 군밤 만들기, 농산물 직거래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마을길과 하천변 정화활동도 함께 펼쳤으며 두모1리 부녀회에서는 정성껏 로컬푸드 밥상을 준비하여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

대전 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실천으로 채운 2025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및 주민참여 활성화' 주제로 올해 총 다섯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는 주원천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대청호 환경사랑 실천마을, 대청호 직거래장터와 대청호보따리, 로컬푸드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대전네트워크 회원마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25년을 열심히 달렸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남은 활동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은 병천천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자의 주제별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한 주민참여형 생태 보전 활동이다.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공유, 일정 조율,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단체 간 신뢰와 협력 구조도 강화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병천천의 수질·생물다양성·외래종 분포를 정기 모니터링하는 수생태 조사, 오염행위 감시를 포함한 하천 감시체계 구축, 시민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맞춤형 실천 중심 환경교육, 병천천 깃대종을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이 추진되었다.

이들 개별 사업은 참여-실천-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지역 생태 보전의 기반을 다졌고, 시민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자료 축적, 협업 체계, 안정적 운영 기반 등은 향후 다른 지역 하천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올해 사업을 함께한 단체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대청호 뉴스 & 뉴스

K-water 대청댐지사, '동자개' 치어 대청호 방류

K-water 대청댐지사(지사장 손동완)는 10월 1일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일대에서 토종 어류인 동자개 치어 17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치어방류 행사는 대청호 수질·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토종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자개는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에서 자생하는 대표적인 토종 어류로, 수질이 양호한 환경에서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어 생태 건강성 지표종으로 꼽히는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식환경의 악화와 외래어종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청댐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번 방류를 통해 토종어류의 개체 수를 보호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청댐지사장은 '대청호는 대전·세종·충청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태공간'이라며, '이번 동자개 치어방류를 계기로 토종어류 보전과 생물다양성 회복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일보 천정훈 기자

청주YMCA, 대청호 두모1리서 농촌 봉사·교류활동 전개

청주YMCA(이사장 최충진)는 27일 '10월 봉사의 날'을 맞아 청주시 문의면 두모1리에서 농촌 체험·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YMCA 회원과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방식의 떡메치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식자재 후원,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했다.

최 이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해 농촌 지역을 위해 힘써줘 감사하다"며 "청주YMCA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양일보 조창희 기자

문의문화유산단지 새단장…청주시 전면 보수 완료

청주시는 25일 문의문화유산단지 방문객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보수사업을 완료했다.

1997년 조성된 문의문화유산단지는 양반가와 문산관 등 전통 건축물 20동이 자리한 문화유산 체험 공간이다.

대청호를 배경으로 한 경관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꾸준히 찾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총사업비 2억 원(시비 100%)을 투입해 단지 전반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정비(주차 스토퍼 설치, 주차선 도색) △보행로 및 계단 정비 △문화유산 안내판·안전 안내판·관람 안내도 정비 △조형물 도장, 계단 및 비석 세척 등이다.

시는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중화장실 신축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화장실은 60㎡ 면적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을 지나 대청호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착공해 2027년 중순 준공·개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억8천만원(시비 100%)이다.
시 관계자는 "문의문화유산단지는 대청호와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관광거점"이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북일보 전은빈 기자

대청호 제2취수탑, 대전시 "주민과 함께 추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청호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사업'을 두고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이 학교시설 활용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전시는 “주민 요구와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래 의원(국민·동구2)은 동명초 부지를 활용한 물환경교육관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십 년간 상수원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을 위해 실질적 보상과 지역 환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소년·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시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시교육청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정인기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내 숙박형 시설은 학생 안전과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며 학부모 동의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양수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시 “외부인 출입 증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우려가 크다”며 다만 “학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식 등 대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지원책과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마을농로 포장, 상수도 요금 감면, 물환경교육관 건립 등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추동지역 주민이 가장 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물환경교육관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법적·제도적 제약이 많아 우선순위와 타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만일의 시행착오나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구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익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내년 하반기 제2도수터널 착공 전까지 충분한 협의 기간이 있다"며"주민 소득증대 효과와 사업성-운영관리 측면을 보완해, 대전시-동구-시의회-시교육청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적극 협력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래 의원은 “시가 주민 요구와 지역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학교 측과 시교육청도 지역사회 전체가 이득을 보는 방향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무주군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매력 뽐내

무주군은 지난 6일과 7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여행 작가와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무주 투어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및 여행 전문 채널 등을 통해 무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기념한 것으로, '김장 담그기'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무주안성낙화놀이', 덕유산국립공원 '어사길 걷기' 등 무주의 자연·인문·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무풍면에서 진행된 '김장 담그기'는 한국의 대표 식문화인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끼고, 케이 푸드(K-Food)의 본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로컬여행의 매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중략

이번 팸투어는 단기적인 관광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한·일 간 지속적인 로컬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무주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 보호와 주민 상생,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관광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50 탄소중립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천군 업무 협약식

지난 11월 25일, '2050 탄소중립 및 지역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진천군과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진천군 2030 에너지 자립 50% 및 탄소감축 40% 달성'이 가능하다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본보기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천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충북도에서 가장 먼저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무상버스를 투입하여 음성, 보은 등으로 확대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RE100 산단 의무화 및 전환 지원, 태양광 특구 지정 및 에너지 자립망 실현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진천군이 충북도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충북도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건강한 공원만들기 프로젝트] 에코존 신한카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의숲에서 '신한카드 건강한 공원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4월 서구 갈마공원(월평도서관 뒤편)에 에코존을 조성하였습니다.

맥문동, 비비추, 수국 등 다양한 초화류들과 곤충호텔 등 아기자기한 만남의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처 유치원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많은 이용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5일에는 신한카드 임직원들과 에코존 봉

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초화류 보식활동(맥문동 2000본을 식재)과 잡초 제거, 정화활동 등을 진행하였고, 참가자 부대행사로 이오난사 행잉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맥문동 2천본을 뚝딱 심는 신한카드 임직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남으면 어쩌지 고민했는데. 고민도 싹 사라지고, 더욱 풍성해진 에코존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얼마나 잘자라고 있는지 꼭 함께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과중에 점심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신한카드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탄소→친환경 항공유' 시장 선점 나선다

국제적으로 항공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산화탄소를 잡아 친환경 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탄소중립 신산업 선점에 본격 나선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령 탄소 전환 e-SAF는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되며 지난 1월부터 예타를 받아왔다.
CCU는 발전 및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아 메탄올이나 이차전지 소재, e-SAF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CCU를 탄소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207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를 CCU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예타 통과를 위해 보령화력에서 '그린올(Green-ol) 신에너지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
그린올은 이산화탄소를 전기, 물, 미생물 등과 반응시켜 그린 에탄올, 메탄올, 플라스틱 원료, 지속가능 항공유(eSAF) 등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CCU 기술로, KIST가 개발했다.
중략
실증 성공 후 2034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면, 연간 49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도 기대된다.
보령 탄소 전환 e-SAF를 통해 저감하는 연간 4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30년 생 소나무 17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은군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잔가지파쇄기 마을단위 무상 임대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유상으로 운영하던 잔가지파쇄기를 마을 단위 공동 신청 시 연중 무상 임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9대의 잔가지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면 1~3일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고, 대기 상황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노령 농가·취약농가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해소와 안전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업 현장의 불법 소각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산림인접 농지 중심으로 부산물 파쇄 지원과 농업인 대상 안전처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희경 농촌지원과장은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는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와 불법소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을 단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인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
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잊지 마세요.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